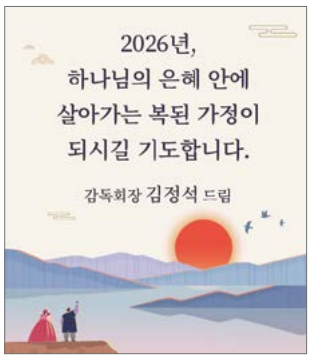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6년 신년예배, 임명식

남·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 각 위원회 주신 사명 위한 결단의 시간

광림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와 각 위원회는 1월 24일(토) 본당 대예배실에서 신년예배 및 임명식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신년예배는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로, 임명식을 통해 각자의 부르심과 직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공동체 안에서 한 해의 방향을 함께 세워가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1부 예배는 스데반가족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화열 권사(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는 성경을 봉독했다. 안경섭 장로(실업인선교회 회장)는 광림교회가 올해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 각 부서가 부흥하고 사명을 받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기도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고전 16:15~18)는 말씀을 전했다.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와 브드나도, 아가이고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요, 섬기기로 작정한 자이며,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들을 알아주라고 했다. 사명을 맡은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과 힘을 전하고,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며, 자원하여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광림교회의 사명 맡은 자가 되자"라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신년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조성한 목사의 사회로 각 위원회와 남·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 임명식이 진행되었다.
본당 위원회 대표는 남선교회 박기연 장로, 여선교회 이화열 권사, 실업인선교회 안경섭 장로가 김정석 감독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지성전 대표는 광림남교회 재정위원장 양상식 장로, 광림북교회 예배위원장 정환명 권사, 동탄광림교회 예배위원장 최병두 집사가 임명장을 받았다.
남선교회는 선교구연합회장, 본부임원, 센터장, 교구회장과 172개체선교회장을 임명했다. 여선교회는 연합회 임원, 개체선교부 부장과 회계, 453개체선교회장을 임명했다. 실업인선교회는 본부임원과 분과위원장들이 임명장을 받았다.
정기석 권사(남선교회총연합회 총무)는 "남선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서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현숙 권사(여선교회총연합회 총무)는 "올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선후배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려움은 도전의 기회로 삼고,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임명식에 참석한 각 위원회 위원장과 총무, 남·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 임원들은 올 한 해 광림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범사에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소현수 기자



2 광림의 강단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
3 광림 스토리 교사 임명예배
5 다음세대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7 목회현장 바울의 전도여행 3
8 특집 교회학교 30년, 35년 근속교사 소회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서신에 나타난 자신의 나약함과 더불어 솔직함, 그리고 겸손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신을 향한 여러 고백 가운데 로마서 7장 21~24절의 고백은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더불어 공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스스로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행하며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존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심어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change)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transformation)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인격적인 변화로의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삶의 여정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20~24

20.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째,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남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게 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의 말은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에 따라 행동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우리의 존재의 심연에 깊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변화가 반복될 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깊어질 때 우리의 천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하되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난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둘째,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마음에 담지 말고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서 분노를 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한 감정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분한 감정을 잘 통제하여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26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오랜 시간 분노를 품지 말고 서로 풀 것이 있으면 풀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빨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분노가 찾아오게 될 때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치유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도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수고하여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하고 선하신 뜻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하사관의 아들 바비 힐(Bobby Hill)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의 업적에 관한 책을 읽고 의료 선교사를 돕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남유럽 연합군 사령관 리처드 린제이(Richard C. Lindsay) 공군 중장에게 편지와 함께 아스피린 1병을 보내면서 비행기 낙하산을 이용하여 슈바이처 박사의 아프리카 정글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비 힐의 편지 이야기를 들은 이탈리아의 한 라디오 방송국이 호소문을 발표하자 40만 달러가 넘는 의료품이 기부되어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각각 슈바이처 박사에게 비행기를 제공하여 약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고 예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풍성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폴 니터(Paul Knitter)는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열매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자기 성화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입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교육국 교사 임명예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광림교회 교사들



2026년 교회학교 교사 임명예배가 1월 25일, 주일 저녁예배 시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임명식에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교육위원장과 부장, 총무를 비롯해 총 428명의 교사가 임명되었다.

예배는 이종현 장로(초등교육위원장)의 기도와 교사들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교회학교 정성민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출 3:4)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로, 연약함을 능력으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신다"며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교사 임명식에서는 본당과 지교회를 포함해 11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었다. 본당 영아교육위원회 김숙남 권사, 유아교육위원회 백경자 장로, 유치교육위원회 조수진 장로, 어와나교육위원회 박정원 장로, 유년교육위원회 홍석진 권사, 초등교육위원회 이종현 장로, 소년교육위원회 김진섭 장로, 중등교육위원회 박철우 장로, 고등교육위원회 고희동 장로, 광림남교회 교육위원회 윤선옥 권사, 동탄광림교회 교육위원회 김은하 집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교육국 부장으로는 본당 19명, 광림남교회 9명, 광림북교회 3명, 동탄광림교회 3명, 특별부서인 광림 어린이축구교실 1명, 광림남교회 문화센터 1명과 각 부서 총무, 교사들이 함께 임명되었다.

근속 교사 시상에서는 5년 근속 12명, 10년 근속 15명, 15년 근속 6명, 20년 근속 9명, 25년 근속 2명, 30년 근속 3명, 35년 근속 3명에게 상장과 근속패가, 또 본당과 지교회 33명의 모범 교사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권면의 말씀으로 주일학교 교사의 언행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전하고, 격려하며 세워주어야 한다.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1,500여 명의 학생들을 미래 믿음의 지도자로 키우고 있다. 말씀과 기도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새롭게 더 성장하는 교회학교가 되길 기도한다"고 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사 헌신 서약서'를 통해 "바른 예배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며, 교회학교의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매주 철저하게 심방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며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 최선의 헌신을 다짐하며 서약했다.

*이어서 8면에 교회학교 교사 5명이 근속 30년, 근속 35년의 소회를 전한다.

이상희 기자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누가와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2026년 사순절을 맞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2월 18일(수) ~ 4월 4일(토)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도회는 광림교회 본당을 비롯해 광림남·북교회, 동탄광림교회에서 열리며, '누가와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을 주제로 예수님의 성품과 긍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사순절(Lent)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절제와 기도를 통해 신앙을 되돌아보는 절기다. 특히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부활 후 승천까지의 기간 등 성경 속 고난과 구속의 상징적 시간을 의미한다.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낮은 곳을 향한 사랑'을 본받아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적 회복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3월 29일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이어지며, 4월 3일 금요일에는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성금요성찬예배가 거행된다. 사순절의 완성이자 승리인 부활절은 4월 5일(주일)이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되새기면서 미디어 절제, 무절제한 소비 자제 등 일상 속 '자기 부인'을 연습하고, 금식을 통해 모은 헌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본당 중앙 로비 복도에는 프랑스 화가인 제임스 티소(James Tissot)의 '예수의 생애' 작품 30점도 전시될 예정이다. 제임스 티소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으며, 특별한 영적 체험 이후 성경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평생 수많은 성서화를 남겼으며 미국 브루클린 미술관(Brooklyn Museum)에는 '예수의 생애' 시리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목회선교지원실에서 발간하는 사순절 묵상집은 짧은 묵상 글과 함께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 달력, 새벽 예배 설교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벧엘성전과 나사렛성전, 각 지성전의 새벽기도회 장소에 비치된다.

유병권 기자

포토 뉴스



설 명절 가정 예배문
설 명절 예배를 위한 가정 예배문이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다. 예배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1운동 제107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2월 25일(수) 오전 11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한국교회 3·1절 기념예배를 드린다.



교리교육 Step 1
1월 25일(주일) ~ 2월 15일(주일)까지 매주일 교리교육 Step1을 진행한다.

감독회장 동정



1/26~31	감독회의, 아크부대 방문
2/1	여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
2/3	국민일보 대담
2/5	기감속회연구원 이사장, 원장 이·취임예배
2/6	전국교회학교 교사대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사랑부

사랑부 교사 임명예배, 사단법인광림 총회

웨슬리관 1층 예수와홀에서 임명식과 모범, 근속교사 시상







지난 1월 25일(주일) 웨슬리관 1층 예수와홀에서 제14회 사단법인광림 총회 및 사랑부 교사 임명 예배가 진행되었다. 예배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되었으며, 김정석 감독회장과 사단법인광림의 임원과 사랑부 운영위원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주간보호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정희 사모)와 사랑부 운영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명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사랑부 운영위원은 김분한, 이승신, 유선례, 우형진 장로와 배경화 권사이며, 윤두중 장로(사랑부 운영위원장)가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사랑부 위원장으로는 우형진 장로가, 부장으로는 전창수 권사 외 4명이 임명되었고, 사랑부 교사로는 조민희 교사 외 76명이 임명되었다. 이어진 모범교사 시상에서는 윤해나 교사 외 9명이, 근속교사 시상에서는 10년 근속 신경희, 국지윤 교사, 20년 근속 이정우, 이미애, 장인실, 이용옥 교사, 25년 근속 전창수 부장이 각각 표창장을 받았다.

또 2025년 한 해 동안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한 14명의 개근 교사 및 15명의 정근 교사에게도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조상규 교사가 대표로 표창장을 받았다. 사단법인광림에서도 이윤정 복지사가 10년 근속상을 받았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 디도(고후 8:16~19)를 소개하며 "디도는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으며, 또 여러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은혜가 넘치는 헌신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특히 "사랑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눔과 섬김을 통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임명예배에 이어 제14회 사단법인광림 총회가 진행되었다. 재적 회원 94명 중 54명이 참석해 성원이 선언됐으며, 2025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가 진행됐다.

방경현 감사는 2025년도 회계 및 제반 증빙서류를 감사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2026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이 동의와 박수 속에 통과되어 승인됐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사랑나눔중창단을 합창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법인에서 운영하자는 안건이 제기되어 통과되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사랑부에 재능 있는 인재들이 많은데 중창단을 합창단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총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2026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더욱 간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자고 다짐했다.

문의: 사랑부(02-2056-5680)

이정순 기자

은퇴장로 소회
인터뷰 2

맡겨진 자리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김두원 장로

저는 요즘 제 신앙의 자리를 한 단어로 돌아보곤 합니다. '조력자'라는 말입니다. 바울 곁에서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끝까지 함께했던 아굴라처럼, 모든 자리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이름이 마음에 남습니다. 앞에 서는 자리든, 뒤에서 돕는 자리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이제는 고백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장로의 직분을 맡기셨을 때도 가장 먼저 든 마음은 감사보다 당황이었습니다.
'장로는 보통 사람이 하는 자리가 아닌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순종이었습니다. 맡겨진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여건 또한 함께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미가엘성가대를 섬겼고, 이후 예배위원장으로 예배 현장을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위원장은 늘 근엄한 분들이 하는 자리라고 여겼기에 제 이름이 명단에 있을 때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제가 붙든 것은 단순했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며 예배당을 정돈하고, 강대상 주변을 살피며, 예배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마음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실 때는 늘 긴장했습니다. 다치는 일이 생길까 마음이 철렁했고, '한 분도 넘어지지 않게'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7년의 장로 직분을 마치며 마음이 시원섭섭합니다. 그러나 은퇴가 신앙의 쉼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첫 주일부터 다시 성가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머뭇거리면 마음이 느슨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가대 인원이 줄고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이지만 저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격려하고 힘을 보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덕목은 꾸준함입니다. 믿음은 배워서 생기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배 시간과 약속을 지키고, 맡겨진 자리를 반복해서 지켜내는 가운데 믿음은 조금씩 쌓여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응답해 주셨음을,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현역의 자리'는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모든 자리에서 받은 은혜만큼은 마음에 간직하고자 합니다. 교회 화단의 꽃에 물을 주는 작은 일부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일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동역해 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두원 장로

교회학교

“우리는 하나님 편, 세상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2026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1월 24일 ~ 2월 1일까지 진행



2026년 광림교회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1월 24일 ~ 2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아동부 “표적: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20:30~31), 중고등부 “어느 편인가”(왕하 22:2)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전 부서가 말씀과 찬양, 기도와 체험이 어우러진 풍성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누렸다.

유년·초등부는 교회 본당에서, 소년부는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중고등부는 광림비전랜드에서 각각 성경학교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다소 수줍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젖어 들고 찬양과 기도 속에 아이들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졌고, 교사와 봉사자들은 한마음으로 기쁨의 공동체를 이뤄냈다.

이번 성경학교의 백미는 주제 말씀을 몸소 체험하는 ‘코스 활동’이었다. 유년부의 놀이 중심 활동부터 아동부의 ‘예수님 7가지 표적 체험’,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중고등부의 ‘방탈출’ 미션까지 부서별 맞춤형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은 조별 미션을 해결하며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고 처음 교회를 찾은 친구들도 어색함 없이 함께 어우러졌다.

성경학교의 열기가 정점에 달한 것은 단연 저녁 집회 시간이었다. 차가운 겨울 밤도 아이들의 뜨거운 영성을 꺾지 못했다. 아이들은 설교 말씀에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찬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했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강단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였다.

추운 날씨 속에서 야외 드럼통에 피운 장작불 주위로 모인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마시멜로, 떡, 옥수수, 어묵탕을 나누며 웃고 사진 찍는 동안 새 친구들과의 서먹함은 사라졌다. 또한 문학, 운동, 공부 등 다양한 달란트를 갖고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신앙의 선후배 간 돈독한 유대감을 쌓았다.

교육부 정성민 목사는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됨의 권세를 누릴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안미영 기자





광림 샤이닝키즈 신입생, 원아 모집



광림 샤이닝키즈는 5세부터 7세 아이들을 위한 광림교회 병설 유치교육기관으로, 김정석 감독회장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목회 비전 가운데 세워졌다. 샤이닝키즈는 단순한 유치 교육을 넘어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바른 인성과 더불어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사역의 현장이다.

광림 샤이닝키즈의 하루는 찬양과 예배로 시작된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매일 드려지는 아침 20분의 예배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 가며,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기초를 다져간다.
샤이닝키즈 권정숙 원장은 광림 샤이닝키즈를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보배 같은 그릇”이라고 소개하며, “순백의 도화지와 같은 아이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가며, 신앙의 첫 관문을 통과하도록 돕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광림 샤이닝키즈는 국가 인증 교사진이 유치원 누리과정에 기초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도로 준비된 교사는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으며,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있게 자라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다.

또한 광림 샤이닝키즈는 공식 어학원으로 등록된 유치교육기관으로, 영어를 생활화한 교육을 하고 있다. 매일 영어 수업이 진행되며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가 반별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올린, 피아노, 전통악기 등의 악기 수업을 비롯해 태권도, 미술, 발레, 체육, 수학, 과학, 독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교육 환경 역시 광림 샤이닝키즈의 큰 강점 중 하나다.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1층에 있는 유치원은 높은 층고와 넓고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교구와 교재를 비롯해 원내 조리실과 건물 내 어린이 도서관, 풋살장, 텃밭 등 교육 활동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이 교실 안팎에서 자유롭게 배우고 체험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매주 수요일은 ‘스페셜 데이’로 운영되어 샤이닝키즈만의 특별한 교육이 진행된다. 소 공연(루체포레와 사회봉사관 컨벤션홀), 외부 시설 방문 등의 소풍, 뮤지컬 관람, 생일파티, 영어예배, 다양한 나라에 대해 배우고 기도하는 미션데이 수업을 비롯해 밀레니엄 공원 야외 활동과 물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배움의 기쁨과 공동체 활동의 즐거움을 함께 누린다.
수업 시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40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통학 버스를 통해 옥수동, 잠원동, 압구정동 지역에 안전하고 편안한 등·하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림 샤이닝키즈는 5세 베드로반, 6세 다윗반, 7세 사무엘반으로 구성되어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인성을 함께 배우도록 돕고 있다.
현재 광림 샤이닝키즈는 신입생 원아를 모집하고 있다. 권정숙 원장은 “샤이닝키즈의 아이들은 명랑하며 천진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자율성과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고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택을 망설이고 있는 학부모들께서는 직접 방문해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문의: 샤이닝키즈(02-2015-1101)

박희윤 기자





목회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단 한 번의 그물을 쳐서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하게 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낚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저는 5선교구에 부임한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거리 선교구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2년의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교회 예배 참여와 행사 참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우리 5선교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광림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2025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라는 구호를 가지고 한 해를 성도님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5선교구!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광림의 중심 5선교구를 외치며 함께 달려갔습니다.

연합 속회, 경조총회, 또한 호렙산의 뜨거운 기도회의 참여는 성도님들의 성전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교회 행사인 선교구 찬양제에서 2024년에는 90여 명을 넘지 않았지만 2025년에는 150명 참석을 외쳤고, 5선교구 성도님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모이게 하셨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5선교구에서 만 2년간 목회를 하며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상황과 여건은 비록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2026년 한 해도 기적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현우 목사(5선교구)

광림남교회

말씀과 찬양, 체험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믿음



2026년 광림남교회 유년,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요한복음 20장 30~31절의 말씀 “표적: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주제로 지난 1월 23일(금)~24일(토) 이틀간 광림남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외부 활동으로 초등부는 첫째 날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생애와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나라를 향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둘째 날, 유년부는 CTS 아트홀에서 ‘엘토의 신비한 책갈피 : 삭개오 이야기’라는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키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잘 풀어낸 뮤지컬을 관람하며, 참석한 아이들 모두 삭개오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듣고, 같이 노래와 율동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박영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자신의 기도제목을 나눈 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두 부서 모두 익숙한 교회 공간을 넘어 새로운 외부 활동을 경험하며 신앙의 시선을 더욱 넓히고, 아이들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광림남교회 교회학교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겨울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전도의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박재진 전도사(광림남교회)

동탄광림교회

주차 공간 확보로 부흥의 물꼬를 트다


주일날 개방된 초등학교 주차장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김정석 감독회장님, 그리고 광림교회 모든 권속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동탄성전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동탄광림교회에 부임하며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설적이게도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신도시 특성상 대중교통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여 성도 대부분이 자차로 이동하시기에, 주차 공간 확보는 교회 부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특히 주일 3부 예배 시간에는 교회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와 인도까지 차량으로 가득 차, 예배를 드리러 왔던 새가족들이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동탄성전의 모든 권속은 이 문제를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인근 초등학교(도보 5분 거리)로 마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길이 쉽게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화 문의에서는 단번에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직접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만나 정중히 사정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개교 이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한 전례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타 지역 학교와 종교시설의 협력 사례’들을 정성껏 준비해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월 첫 주부터,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광림의 전통인 ‘적극적 신앙’의 결과로, 계속 문을 두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열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차 공간 확보를 기점으로 동탄광림교회가 더 크게 도약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동탄광림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영재 목사(동탄광림교회)



실루기아 항구와 구브로 섬, 확산되는 복음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 다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행11:26). 그들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의 형제들을 위해 구제할 만큼 믿음이 성숙한 교회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행13:4). 그리고 역사적인 1차 전도(선교)여행(AD 47~49년)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실루기아(Seleucia)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Cyprus/사이프러스) 섬으로 향했습니다. 실루기아 항구는 시리아 안디옥을 가로지르는 오론테스 강 하구에 위치해 있었으며, 도심에서는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정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동행했습니다.

구브로 섬을 첫 선교지로 택한 이유는 바나바의 고향(행 4:36)으로 당시 인구의 절반이 유대인이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의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기에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서남쪽으로 약 200Km 정도 항해하여 구브로 섬에 도착한 일행은 섬 동쪽 살라미(Salamis)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원형극장, 아고라 등이 있었던 로마 시대의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일행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피난 온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복음에 대해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행11:19).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것도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라미에 있던 회당들을 순회하며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일행은 육로를 통해 섬의 서쪽 끝이자 수도인 바보(Paphos)에 이르게 됩니다. 가는 중간에는 구리 채굴을 위해 곳곳에 조성된 유대인 마을과 회당이 있었고, 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교 일행이 바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총독 서기오 바울(Sergius Paulus)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총독 옆에 있었던 마술사 엘루마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본 총독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행13:6-12). 이 사건은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옮겨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겸손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앗달리아(지금의 안탈리아/Antalya)를 통해 버가(Perga)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를 통해 구브로 섬으로, 그리고 다시 앗달리아를 통해 대륙으로 전해진 복음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선교)여행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성장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실루기아 항구의 유적(선착시설)


구브로 섬에 있는 바울채찍기념교회와 성 바울의 기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섬김과 사랑을 베풀다

사회사업위원회 - 박영노 권사



지난 연말 모범 봉사자 시상식에서 사회사업위원회 박영노 권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박 권사는 그동안 기드온을 비롯한 광림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사업 봉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회사업위원회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했나요?

2013년 호렙산 기도회 후 귀가길에 사회봉사관 1층 로비에 당시 위원장이셨던 신동우 장로님, 한성준 성도가 빵과 야쿠르트를 수북이 쌓아놓고 나눠 드리는 모습과 줄 서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매주일 돌봄행사를 했는데 수요일 새벽4시에 장로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이 나와서 물을 끓여 차를 대접하고 어르신들의 사연을 경청하면서 믿음의 덕목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졌으며, 13년간의 봉사를 통하여 섬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행사나 보람이 있다면?

9쌍의 무료 결혼식에서 봉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식을 올리지 못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아홉 가정에 김정석 감독회장님 주례로 성대한 결혼예식이 진행되었고, 예식 참가자 몇 분은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광림'이란 이름을 짓겠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로뎀 청소년 학교 학생 초청 수련회 등 여러 사업들을 통해 보람을 갖게 됐습니다.

사회사업위원회가 이런 점이 좋다고 추천한다면?

사회사업위원회는 광림교회 5대 전통과 감독회장님이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말씀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장재관 장로님 중심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려 하고 있으며, 매월 실시하는 어르신 돌봄 행사를 비롯 사랑의 동전모으기, 청년선교국 교육선교와 사랑의 연탄 행사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저희 위원회에서 경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실시하는 설맞이 새벽 섬김 봉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매년 설 명절과 추석 섬김 행사는 지엔씨 에너지 기업 대표이신 안병철 권사님 후원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도 2월 11일(수) 새벽 5시부터 회사 기독직원 세 분이 함께 봉사해 주십니다. 어르신들에게는 현금과 한방파스, 빵, 두유, 사탕, 양말 등 많은 물품이 지급됩니다. 행사 전체의 후원과는 별도로 개별 물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성도도 계시는데 성경구절이 담긴 사탕은 김명진 권사, 최근 어르신 행사를 알게 됐다는 최정희 권사는 올해부터 두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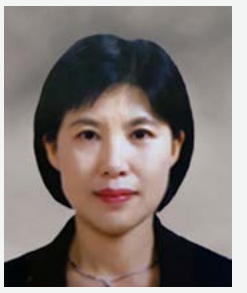
어르신 섬김 행사에는 남자 100분, 여자 150분 가량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오십니다. 새벽 지하철이 도착할 때마다 불편한 몸으로 뛰어오시는 모습들을 보면 애잔한 마음도 듭니다. 요즘은 경기둔화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랑의 행사를 중단했지만, 광림교회는 코로나 이후 격월로 실시하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확장하여 매달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뜻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득섭 기자



교회학교 30년, 35년 근속 교사 소회 글





35년 근속
고등2부
박순옥 교사

2026년 교사 임명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35년 간의 시간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사로 있는 동안 같이 호흡하며 지냈던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며, 나눈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서로서로 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려는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7)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학생들과 마주하며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매 순간 만나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 오늘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35년 근속
고등1부
송대중 교사

어릴 적부터 저는 광림교회 교육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아 주시고, 한 사람의 인생에 표적이 되어 주셨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어른이 되면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고등부 선생님의 권유로 교사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들을 좋아했던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 공동체가 보여준 헌신과 기도, 그리고 가족 같은 평안함은 제 삶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이어오다 보니 어느덧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 없이 '교사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회개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교사의 자리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에 다니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순간을 살아왔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여정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일신상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수없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겨내게 하셨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큰 감동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시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같은 부서에서 함께 섬기게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제 자녀들이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교사들을 만나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사를 배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심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교사의 자리에서 누린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로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30년 근속
중등1부
감태오 교사

한번도 교사로 30년을 근속하겠다고 다짐한 적도 없었고, 저희 가족 모두 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원 한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택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2026년에도 가족 모두가 교사로 임명 받고 순종합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믿고, 한 교회 한 가족이 한 부서에서 교사로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시 37:24)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광림교회를 다녔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여름수련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합니다.

주일에 못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때 안타깝습니다. 그중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못 나올 때 부모가 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길 바라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번 겨울 수련회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30년 근속
초등2부
유성철 교사

먼저 부족한 저에게 30년 동안 초등2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981년 11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광림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였는데 벌써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초등2부 신임교사로 봉사하고자 했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이 교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릴적부터 어머니께서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 한 구석에 부족하지만 나도 오랫동안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교사가 되리라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 지난 30년 동안 초등2부에서 드리던 예배와 행사를 진행하던 때를 생각하면 함께했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이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습니다.
현재 교회학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 각 부서 예배당에 1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사의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0년 근속
유치2부
이지영 교사

부족한 저를 유치부 교사로 세워주시고 30년동안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에 교사로 첫발을 내딛었을 때 설레는 마음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뤄가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길 늘 기도했습니다.

지치고 힘들때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저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유치부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일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저도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유치교육위원장님,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이 있기에 즐겁고 기쁘게 교사의 사명을 30년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편집인 황지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희윤 백명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광림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